

베일에 싸인 천재 디자이너, 예술가로 돌아오다!

롯데뮤지엄 <마틴 마르지엘라> 국내 최초 전시

롯데뮤지엄, 마틴 마르지엘라展 | Martin Margiela at LOTTE Museum of Art

- ✓ 패션계를 떠나 아티스트로 돌아온 마르지엘라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국내 첫 대규모 기획 전시
- ✓ 1980년대부터 탐구해 온 [예술, 물질과 신체, 성별의 관념, 시간의 연속성, 직접 참여]에 대한 성찰
- ✓ 마틴 마르지엘라가 창조한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롯데뮤지엄은 <마틴 마르지엘라>의 국내 최초 대규모 기획 전시를 12월 24일(토)부터 2023년 3월 26일(일)까지 개최한다. 패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의 창립자이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였던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b. 1957)가 2008년 돌연 패션계를 은퇴하고 순수 예술 창작자로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1980년대부터 깊게 고민해온 ‘예술, 물질과 신체, 성별의 관념, 시간의 연속성, 직접 참여’를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총 50여점의 설치, 조각, 영상, 퍼포먼스, 페인팅 등이 미술 애호가들과 그의 팬들을 맞이할 것이다. 패션의 시스템과 ‘인체’라는 매체의 한계를 넘어 뮤지엄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안적 사유(alternative thinking)를 제시하며 예술적 시도를 지속하는 마르지엘라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2021년 프랑스 파리 소재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Lafayette Anticipation)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고 올해 베이징 엠우드즈(M Woods)에서 전시한 후, 세번째로 서울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다. 롯데뮤지엄은 작가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시를 기획했다. 뮤지엄 전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바탕으로 미로를 구성하고 장소 특정형(site-specific) 작품을 선보이는 등 서울 관람객을 위한 독창적인 전시가 탄생했다.



<마틴 마르지엘라> 전시 포스터

✓ 마르지엘라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국내 첫 대규모 기획 전시

‘예술, 물질과 신체, 성별의 관념, 시간의 연속성, 직접 참여’는 마르지엘라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주제다. 초반에는 패션의 범주 안에서 이를 표현했으나 디자이너에서 은퇴한 후 어떠한 제약 없이 시각 예술가로서로서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누리며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 꼽힌 <데오도란트(Deodorant)>는 매우 일상적인 물건이다. 작가는 데오도란트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체취를 인위적으로 은폐하고 더 나아가 현대 사회의 위생에 대한 관념도 산업화되어 버린 우리의 현실을 일깨운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신체를 소재로 삼아 확대 재생산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극적으로 시각화한 작업을 통해 그것의 의미와 상징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토르소 시리즈(Torso Series)>는 인체의 일부를 3D 스캔하여 만든 실리콘 조각으로 고대 조각상의 관념에서 탈피하는 한편 젠더의 의미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바디 파트 (Bodyparts)> 시리즈는 인체의 한 부분을 촬영하여 크게 확대한 작품들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부분인지 알아볼 수 없게 표현했다. <레드 네일즈 (Red Nails)>는 붉은 손톱을 거대한 규모로 형상화 한 작품으로 변화하는 아름다움의 개념과 구성 원리에 대해 연구한 작가의 사유가 담겨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유독 머리카락에 관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띈다. <바니타스(Vanitas)>에서는 모발로 얼굴이 덮힌 두상을 볼 수 있는데, 머리카락 색상만으로 유년부터 노년까지 나타내며 인간의 생애 흐름을 드러낸다. 작가는 인공 피부를 입힌 실리콘 구체에 자연 모발을 하나하나 이식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지도 제작법’이라는 뜻의 <카토그래피(Cartography)>는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인공 모와는 달리 정수리에서부터 소용돌이치며 자라나는 자연 모발의 방향을 작가가 심도 있게 연구한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 마틴 마르지엘라가 창조한 새로운 차원의 시공간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한 점은 마틴 마르지엘라가 창조한 세계관 속에서 관람객이 새로운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 연출의 작은 부분까지 마틴 마르지엘라는 세심하게 신경 쓰며 자신이 만들어낸 시공간에서 관람객이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하기 바랐다. 롯데뮤지엄은 작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시장의 독특한 공간을 활용해 마치 미로와 같은 전시 공간을 완성하기도 했다.

우선 작가는 관람객에게 작품을 모든 시간 동안 노출시키지 않는다. 스태프가 작품을 하얀 천으로 덮었다 열었다를 반복하며 작품 관람 시간을 제한한다. 관람객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작품을 더 밀도 있게 감상하며 퍼포먼스까지 작품의 범주에 포괄하며 작품을 흥미롭게 감상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 중반에는 <모뉴먼트(Monument)> 작품이 관람객에게 잠깐의 휴식을 제공한다. 거대한 소파에서 관람객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자신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 소개

마틴 마르지엘라 | Martin Margiela (b.1957)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아름다움은 그러한 상황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성이다.”

-마틴 마르지엘라

'Beauty as a quality only becomes apparent at certain occasions, in other words it is a quality in which those occasions play an important role.'
- written message in the former headquarters of Maison Martin Margiela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의 설립자로 익히 알려진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1957-)는 1957년 벨기에 루뱅(Leuven)에서 태어났다. 마르지엘라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발소에서 향수를 팔았다. 마르지엘라는 6세가 되던 해, 1960년대 가장 영향력 있었던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 1923-2016)의 컬렉션 중 하나를 TV에서 접하고, 그 파격적인 디자인에 매료되어 패션 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진다. 이후 10대의 마르지엘라는 벨기에 하셀트(Hasselt)에 있는 신트루카스 예술학교(Sint-Lukas Kunsthumaniora art school)에서 공부하였고, 중고 의류 가게에서 여러 소재의 헌 옷과 장신구 등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하는 것에 몰두했다.



Self-portrait, 2021
© Martin Margiela

1980년 벨기에 안트워프 왕립 예술학교(Royal Academy of Fine Arts in Antwerp)를 졸업한 마르지엘라는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패션계에 입문한다. 파리로 이주한 이후,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52-)의 첫 번째 어시스턴트로 활동한 마르지엘라는 1988년에 사업 파트너인 제니 메이렌스와 함께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를 설립하며, 1989년 파리의 황폐한 지역에 있는 버려진 운동장에서 1990년 봄/여름 컬렉션을 선보였다. 작가는 페허와 같은 런웨이, 비틀거리는 모델들의 모습을 통해 패션계에 충격을 주고, 관습적인 사고에 도전하는 독창적이고도 전위적인 스타일을 내세우며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에서의 활동 외에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에르메스(Hermès)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총 12시즌의 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벨기에 보자르 미술관(Bozar), 보이만스 반 뵤닝언 미술관(Museum Boijmans Van Beuningen), 독일 하우스 데어 쿤스트(Haus der Kunst), LA 카운티 미술관(LA County Museum of Art), 런던 서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 등 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개최된 여러 전시에 참여하며 예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그리고 2008년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20주년 기념 쇼를 마지막으로 패션계를 은퇴하였다.

이후 마르지엘라는 시각 예술 아티스트로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파리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의 초청으로 진행된 첫 번째 대규모 개인전 《마틴 마르지엘라 옛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 Martin Margiela at Lafayette Anticipation》을 시작으로, 베이징 엠 우즈 뮤지엄(M WOODS Museum)에서 개최되었으며, 2022년 12월 서울 롯데뮤지엄(LOTTE Museum of Art)에서 진행된다. 마르지엘라의 해체주의적인 방식은 구성요소를 파괴하고 재배치하여 모호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사용한 흔적과 생산과정을 드러내어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의복이라는 일상적인 매체에서 시작된 상식과 경계를 뒤엎는 마르지엘라의 독창적인 시각 예술은,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재료와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 작가 약력

- 2021 파리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에서 첫 개인전
《마틴 마르지엘라 옛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 *Martin Margiela at Lafayette Anticipations*》 First solo exhibition at Lafayette Anticipations, Paris
- 2022 베이징 엠 우즈 미술관에서 순회전
《마틴 마르지엘라 옛 엠 우즈 *Martin Margiela at M WOODS*》
Solo exhibition at M WOODS, Beijing
- 2022-2023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순회전
《마틴 마르지엘라 옛 롯데뮤지엄 *Martin Margiela at LOTTE Museum of Art*》
Solo exhibition at LOTTE Museum of Art, Seoul

✓ 전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문 도슨트와 오디오 가이드

작가의 철학적 사유가 깊게 배어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마르지엘라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도슨트 작품 해설과 오디오 가이드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대표 도슨트 김찬용과 이남일, 심성아 도슨트가 마르지엘라의 작품과 그 이면에 내재된 이야기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평일 11시, 13시, 15시에 전시장을 방문하면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전시 도슨트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무료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면 된다. 네이버 VIBE 앱에서 개별 작품 설명을 청취하며 전시를 재밌게 즐길 수 있다. 롯데뮤지엄은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과 오디오 가이드를 모두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분들이 전시를 더욱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오디오 가이드
연결 QR 코드

✓ 미술 전시를 선물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

롯데뮤지엄은 마르지엘라 전시를 통해 국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의 폭을 넓히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먼저, <신영증권과 함께하는 아트 스튜디오>는 초등학교 4-6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전시 관람과 아트 클래스를 연다. 참가 신청은 롯데뮤지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2월 26일(월) 10시부터 선착순 마감으로 접수한다.

롯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총 100명을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LMoA 아트 스튜디오>로 초청한다. 12월 26(월)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 연령 100분을 모시고 무료 전시 설명과 아트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16일(금) 당일에 모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롯데뮤지엄은 앞으로도 미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주요 작품 소개

01. 데오도란트 *Deodorant*, 2020-2022 년 작품



Deodorant, 2020-2022, UV print on PVC, 340 x 190 cm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데오도란트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의 물건인 데오도란트를 대표 작품으로 선택했다. 데오도란트는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대인에게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땀이 흐르며 분비되는 체취를 덮기 위해 현대인들은 데오도란트를 사용하여 그 흔적을 감춘다.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지우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땀의 흔적을 덮어버리고, 현대사회에서 매력적인 신체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인간적인 체표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작가는 신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데오도란트라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매개가 현대 위생에 대한 강박과 몸을 관리하는 행위조차 산업화된 현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적인 영향을 주는지, 더 나아가 형태의 변형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시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데오도란트 작품은 기존 상품 라벨에 표기된 모든 성분 표시는 사라지고, 이번 서울 전시에 대한 정보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을 볼 수 있다.

02. 헤어 포트레이츠 *Hair Portraits*, 2015-2022 년 작품



Hair Portraits, 2015-2022, Collages, vintage magazines, steel, and plastic Pedestals: 90 x 30 x 40 cm Magazines: 34 x 26.5 cm, Courtesy RAF SIMONS COLLECTION, Belgium,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헤어 포트레이츠(Hair Portraits)〉에서는 잡지 더미가 쌓여있는 가운데 연기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한 권씩 벽에 잡지를 거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잡지들은 유명인에 관한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던 『주르 드 프랑스 (Jours de France)』 나 『르 수아르 일러스트레 (Le Soir Illustré)』 같은 1960-1970년대 프랑스와 벨기에 매거진으로 세월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 비닐에 세심하게 포장되어 있다. 벽에 걸린 잡지 표지에는 시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다. 이

전설적인 인물들은 ‘셀러브리티’ 문화의 수단인 잡지를 통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살아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낸다.

바닥에 쌓인 잡지 더미의 상단에 놓인 『파리 매치 (Paris Match)』의 커버에는 달 표면의 풍경이나 화산 분출 또는 광활한 벌판이 등장하는데, 이는 마치 벽에 걸린 잡지 표지의 환상 속 존재와 상반된 실재하는 지구 풍경의 이미지를 대치시켜 사고의 전복을 유도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헤어 포트레이츠〉를 통해 우리의 꿈과 환영을 담은 잡지라는 매체와 사물의 본질적 존재를 혼합하여 보여주며, 자연 재해, 대격변의 전조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대자연의 힘 간의 대치를 상징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마르지엘라는 존재의 잔해는 무엇이며 그들이 어떻게 영속적인 아우라(aura)의 형태로 계속 살아남았는지 질문을 제기한다.

03. 바니타스 *Vanitas*, 2019년 작품



Vanitas, 2019, Silicone and natural dyed hair, 90 x 245 x 50 cm, Courtesy Antwerp City Collection, on long-term loan at M HKA, and MoMu – Fashion Museum Antwerp,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바니타스 (Vanitas)〉는 모발로 얼굴 전체를 덮은 실리콘 두상으로, 유년부터 노년까지 인간의 생애 전체를 머리카락의 색상만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밝은 색 머리카락이었다가 자라면서 색이 점점 진해지고 시간이 더 흐르면 결국엔 머리카락이 회색 빛에 이르게 된다. 사람들은 대개 염색으로 시간의 흔적을 감추려 하지만 종국에는 시간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나이 듦에 대해 받아들인다. 마르지엘라는 인공 피부를 입힌 실리콘 구체에 자연 모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이식하여 작품을 완성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회화 장르 중 하나였던 바니타스는 덧없는 현세의 삶을 상징하는 사물을 중심으로 인간의 공허함과 죽음에 초점을 두고 세속적인 것의 부질 없음을 환기한다. 예를 들면 바니타스 회화는 전체적으로는 탐스러운 과일이 가득한 정물화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패하면서 벌레가 달려드는 등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하지만 마르지엘라는 인간 자체를 공허함의 표상으로 시간의 흐름과 죽음의 필연성을 드러낸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가 작품에서 보편적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치환되며 우리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04. 토르소 시리즈 *Torso Series*, 2018년-2022년 작품



Torso Series, 2018-2022, Wood core, plaster, and polyurethane foam, Torso I: 145 x 30 x 27.2 cm, Torso II: 145 x 40 x 30 cm, Torso III: 145 x 50 x 40 cm Torso, IV: 145 x 38.7 x 29.4 cm, Torso V: 145 x 38.7 x 29.4 cm, Torso VI: 145 x 50.5 x 39.4 cm, Courtesy the artist and Zeno X Gallery, Antwerp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관람객은 6 개의 놓여진 조각상을 보는 동시에 작품 옆 벽면에 붙은 실리콘 라벨을 만져보며 시각과 촉각 두 감각을 모두 사용해 작품을 감상한다. 스태프는 관람객이 지나갈 때마다 흰 천으로 한 조각씩 작품 전면을 덮어 감춰다가 열었다를 반복하며 작품 감상의 시간을 제한한다.

이 작품은 인체의 일부를 3D 스캔하여 만든 조각인 <토르소 시리즈(Torso series)>로 마르지엘라는 작품을 통해 관념적인 고대 그리스의 인체 조각상과는 상반된 개념을 창출한다. 고대 조각상은 인체의 미를 찬양하며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와는 다르게 작가는 토르소의 형태, 크기, 재질, 그리고 사람의 몸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몸의 개념을 파괴하고 확장한다. 대리석에서 현대의 실리콘으로 재료를 변경하여 작품의 기원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인공 피부와 같은 재료를 도입하여 촉각적 경험을 더했다. 또한 여러가지 컬러의 실리콘을 차용해 다양한 피부색을 작품에 반영한다. 작품을 받치는 좌대와 오브제를 하나의 재료로 연결하여 받침대까지 작품으로 포함시켜버리는 근본적인 혁신을 모색하기도 한다. 작가는 <토르소>를 통해 과거와 현재, 남성성과 비남성성의 혼합물, 둘 사이를 부유하는 모호한 존재를 창조하게 된다.

05. 모뉴먼트 *Monument*, 2022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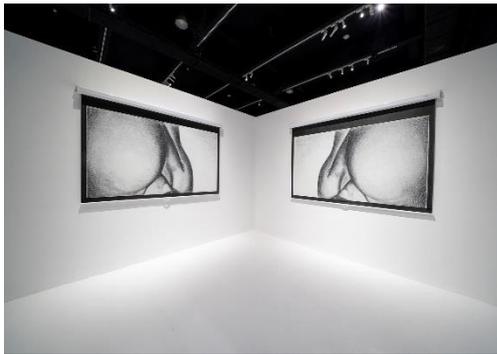
<모뉴먼트(Monument)>는 2021년 파리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에서 전시된 작품으로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롯데뮤지엄 공간에 맞게 구상한 몰입형 전시 작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전시장의 거대 공간에 설치된 <모뉴먼트>는 메쉬 프린트를 배경으로 대형 빈티지 소파 그리고 음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은 전시 중간에 맞이한 소파에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며 전시장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상 소음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체육관의 소음을 함께 듣게 된다. 2017년 뮤지엄 공사 장면을 담은 메쉬 프린트는 소파 뒤편의 벽에 배경으로 걸려있다. <모뉴먼트>는 관람객의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특정한 순간을 일깨우고 설치된 이미지를 계속해서 환기시킨다.



미로와 같은 공간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 〈모뉴먼트〉는 그 미로의 중심에 자리한다. 신화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는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대면의 장소였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구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흔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전시 공간 안에 세웠다.

Monument, 2021-2022, Fiberglass mesh print, vintage sofa, and audio loop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the artist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06. 바디 파트 블랙 앤 화이트 *Bodyparts B&W*, 2018-2020 년 작품



Body Part b&w, 2018-2020, Oil pastel on repurposed projector screen 123 x 222 x 8 cm, Courtesy the artist and Zeno X Gallery, Antwerp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바디 파트 블랙 앤 화이트 (Bodypart B&W)〉는 프로젝터 스크린에 오일 파스텔로 인체를 묘사한 드로잉 작품이다. 마르지엘라는 현대적인 프로젝터 스크린을 캔버스 삼아 고전적인 목탄 드로잉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을 매우 확대하여 그려진 도상으로 2 개의 동일한 이미지는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완벽한 대칭을 이룬다. 스태프는 관람객 앞에서 프로젝터 스크린을 내려서 이미지를 공개한 후, 다시 스크린 올리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작품은 캔버스에서 번지고 떨어져 나온 흔적이 생기는데, 마르지엘라는 이런 우연성으로 작품이 변형되는 과정을 그대로 작품의 일부로 차용한다. 작가는 기존 미술관의 엄격한 작품 보존 방법으로부터 작품을 해방시키고 생명을 불어넣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07. 카토그래피 *Cartography*, 2019 년 작품

‘지도 제작법’이라는 뜻의 〈카토그래피(Cartography)〉는 작가가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방향을 연구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늘어지는 인조모와는 달리 정수리에서 자연 모발이

소용돌이치며 자라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마르지엘라는 다양한 실험을 시행했다. 두상을 찍어 확대 복사한 후 나무 패널에 붙인 이 작품에서는 모발이 자라나는 방향을 파스텔 드로잉으로 화살표 표시를 하면서 그 역동성을 포착하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작가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마르지엘라는 사람의 모발에는 제각기 수많은 유전적 단서와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포착하여 두피의 정수리 부분을 존재의 기억과 경험이 저장된 하나의 지도로 여겼다. 이러한 지도 만드는 과정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며 시간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artography, 2019, Print on Forex, wood, and polyurethane foam, 210 x 200 x 90 cm, Courtesy the artist and Zeno X Gallery, Antwerp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08. 레드 네일즈 *Red Nails*, 2019 & 레드 네일즈 모델 *Red Nails Model*, 2021



〈레드 네일즈〉



〈레드 네일즈 모델〉

Red Nails, 2019, Lacquer on fibreglass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the artist and Zeno X Gallery, Antwerp (원)

Red Nails model, 2021, Nymphenburg porcelain enamel
Variable dimensions, Courtesy the artist and Zeno X Gallery, Antwerp (오)

"Martin Margiela at M WOODS", Installation View, 2022, M WOODS Hutong, Beijing.
Photo by Zhao Yihan, Tian Yu. © MWOODS

붉은 손톱을 형상화한 두 작품 중 〈레드 네일즈〉는 대형 크기로 제작되었고 〈레드 네일즈 모델〉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인간 신체 일부를 분리 후 확대한 작품은 그것에 대한 상징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매니큐어는 1920년대 자동차 컬러 광택제가 개발되면서 함께 만들어졌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조 손톱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요소로 당시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관련된 아이템이었으며, 빨간색은 매혹적인 여성과 스포츠 카의 이미지와 직결되곤 했다. 마르지엘라는 변화하는 아름다움의 개념과 그 구성 원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요소를 항상 연구해왔다. 그에게 인간의 다양한 변신 방법과 도구는 흥미로운 대상이었다. 〈레드 네일즈〉 작품은 인조화 된 매력적인 도구와 상징적인 색상이 사람들의 시각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키치한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유혹과 거부감 사이에서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의 개념과 그 전형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전시 개요

구분	내용
전시명	(국문) 마틴 마르지엘라 (영문) Martin Margiela at LOTTE Museum of Art
전시기간	2022. 12. 24(토) - 2023. 3. 26(일)
전시장소	롯데뮤지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7층 · 에비뉴엘 6층
전시작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출품작	설치, 조각, 콜라주, 페인팅, 영상, 퍼포먼스 등 총 50 여점
티켓	성인 19,000 원/ 청소년 13,000 원 / 어린이 9,000 원
문의	1544-7744
주최/주관 후원/협찬	주최:롯데문화재단 주관:롯데뮤지엄, 엠우즈 뮤지엄, 라파예트 안티시페이션 미디어 후원: 네이버, 보그 코리아 협찬: 신영증권, (주)호텔롯데, LG 디지털사이니지
전문 도슨트	김찬용, 이남일, 심성아 도슨트 진행 (무료) 평일 (월-금) 11 시, 13 시, 15 시
전시 퍼포먼스	월요일-일요일 11 시, 13 시, 15 시
문화가 있는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현장 할인 (40%)

사회 공헌 프로그램

구분	내용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LMoA 아트 스튜디오	기간: 12. 26(월) - 12.30(금) 10 시, 19 시 대상: 전 연령 총 100 명 대상 내용: 무료 전시 관람 및 아트 클래스 신청: 현재 전석 매진
신영증권과 함께하는 아트스튜디오	기간: 12. 31(토), 23. 1. 28(토), 2. 25(토), 3. 25(토) 10 시 대상: 초등학교 4-6 학년 내용: 무료 전시 관람 및 아트 클래스 신청: 22. 12. 26(월) 10 시부터 선착순 마감



사진 자료 | 홍보 담당

구분	내용
사진 자료	www.webhard.co.kr ID : lottech1008 PW : 1234 GUEST > PRESS > 롯데뮤지엄 > 마틴 마르지엘라 *이미지 사용시 저작권 표기 반드시 명시 부탁드립니다.
홍보 문의	심보금 bk.sim@lotte.net